

2 가동 2개월 운영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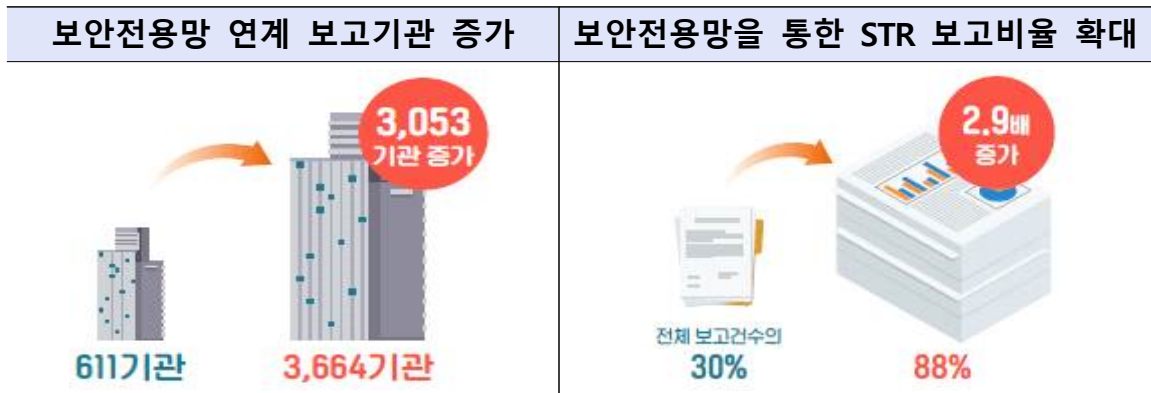
- FIU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2개월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, 차세대 사업의 목표인 ①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, ② 심사분석 역량 강화, ③ 정보보안 강화 관련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.

1.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

- ①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*(611개→3,664개)하였으며,

* (기존) 일부 은행 및 상호금융 → (확대) 은행, 증권, 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

- 그 결과,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도 약 3배로 확대(30%→88%)되었습니다.



- ② 6천여개의 보고기관이 전송한 의심거래정보를 지연없이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·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이 10초 이상 단축(13.3초→2.9초) 되었습니다.

STR 1건당 처리시간



2. 심사분석 역량 강화

- ① 현행 심사분석과정에서 각종 보고서 작업, 행정자료 입수 등 단순·반복적이고 수작업이 필요했던 업무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산화·자동화*하여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.

* 각종 보고서는 양식에 맞게 자동 생성함으로써 업무 편의성이 향상되었고, 행정자료는 관련 시스템과 직접 연계하여 입수일 단축(10일 이상→1일 이내)

-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,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평균 35% 증가('19년 대비)되었습니다.

- ②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, 전략분석 고도화, 계좌·인물·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하여 심사분석의 품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.

심사분석 품질 수준 고도화



3. 정보보안 강화 및 처리성능 향상

- ①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FIU시스템의 보안수준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 관리원*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

- * 국가·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·관리하는 기관
- 외주인력이 아닌 관리원 직원이 직접 내·외부 보안관제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업무*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
* 매월 시스템 운영현황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FIU 등 입주기관에 배포

② 이외에도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*를 도입하고 서버 등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처리성능을 9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.

* 국가공공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조와 공통기능 등을 제공하는 표준 환경



3 향후 계획

- ☐ 차세대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.
 - 차세대 시스템의 개편 성과를 지속 점검해가며 보완사항을 발굴·개선하고, 사용자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.
- ☐ 차세대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
 -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,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·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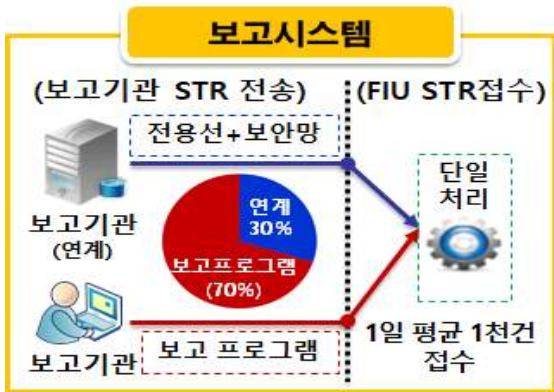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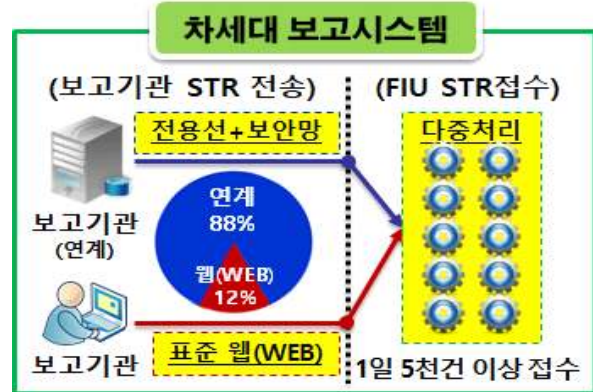
※ '20.12.17일 보도참고자료 「12월 17일(목)부터 기능이 한 단계 고도화 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가동됩니다.」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기존 시스템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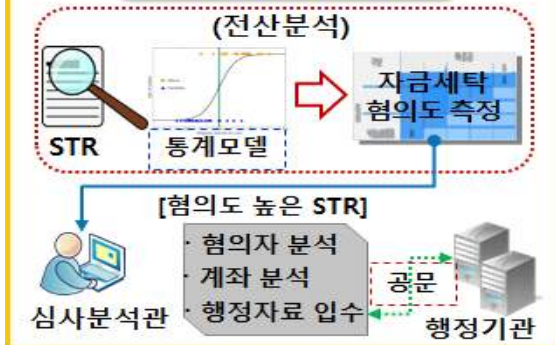
- 전용선/보안망 연계를 통해 전체 STR의 30% 접수
- 보고 프로그램 노후화 및 기술지원 종료
- STR 접수시 단일 프로세스 처리로 1일 1천건 접수

< 차세대 시스템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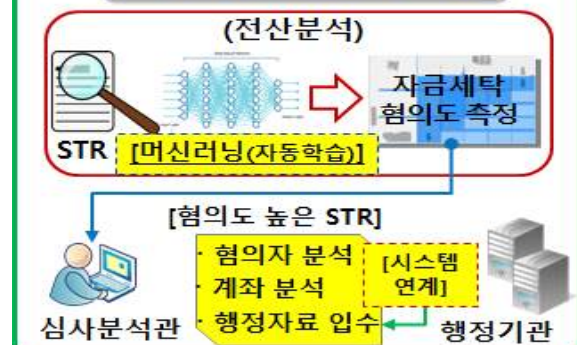
- 전용선/보안망 연계를 통해 전체 STR의 88% 접수
- 표준 웹(WEB) 기반의 보고시스템 구축
- STR 접수시 다중 프로세스 처리로 1일 5천건 이상 접수

심사분석시스템



- 통계모델 노후화로 최신 수법 탐지 곤란
- 행정자료 종류가 제한적이며 입수에 10일 이상 소요
- 세밀한 심사분석을 위한 지원도구 미흡

차세대 심사분석시스템



- 머신러닝 기술로 최신 자금세탁수법을 자동으로 학습
- 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 확대 및 1일 이내 입수
- 심사분석 지원도구 개선·확대

정부서울청사



- 보안관제, 시스템 모니터링 등은 FIU 외주직원이 관리

정부서울청사



- 보안관제, 시스템 모니터링 등은 관리원 직원이 관리 (FIU는 업무용 장비와 관련된 유지보수 수행)